

Research Center

한투의 아침

■ Today's Focus

4월 KIS 글로벌 ETF 아이디어

■ 기업/산업분석

현대에이치씨엔, 통신서비스

■ 경제/투자전략/글로벌자산관리

채권 Note: 4월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코텍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삼성전기 외 5개 종목

■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투자 전략 | 박소연
해외주식 | 백찬규
경제 분석 | 박정우

시황 분석 | 김대준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채권 분석 | 오창섭

계량 분석 | 안혁
중국 시장 | 최설화
크레딧 분석 | 김기명

스몰캡 전략 | 정훈석
베트남 시장 | 부쑤언토
해외채권 | 정영록

유동성 분석 | 송승연
글로벌 기업 | 정희석

자산배분 전략 | 정현종
글로벌 기업 | 김시우

4월 KIS 글로벌 ETF 아이디어

커버드콜 전략, 주식 보유와 동시에 콜옵션 매도하는 전략
 올해 주식 변동성 확대된 반면 기대수익률 높지 않아 커버드콜 매력 부각
 글로벌 ETF 아이디어: S&P500 커버드콜(PBP), 나스닥100 커버드콜(QYLD)

낮아진 위험자산 기대수익: 커버드콜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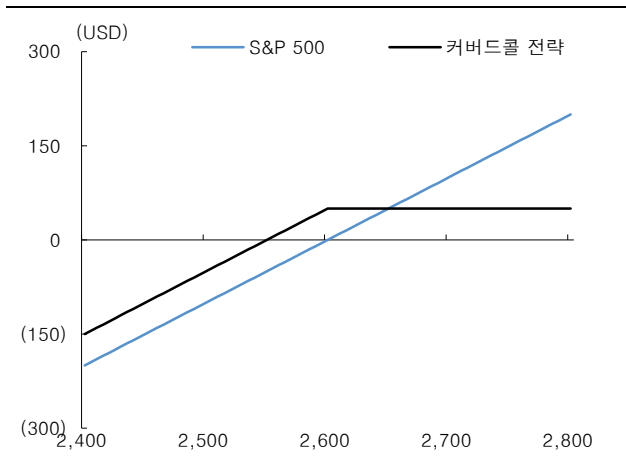
**높은 일드, 하락위험 방어의
매력을 가진 커버드콜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과 금리인상 가속에 대한 우려로 지난해와는 달리 높아진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개선과 기업실적 강화는 유효하지만 위험자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한층 낮아진 듯하다.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고 일부 하락위험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이자나 배당 수익을 확보하는 인컴 투자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커버드콜 전략(Covered call option strategy)은 주식을 보유하는 동시에 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주식 보유량만큼 매도하는 투자전략이다. 옵션 매도에 따른 추가적인 인컴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방법이다. 다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경우 업사이드가 제한되어 주가 상승의 이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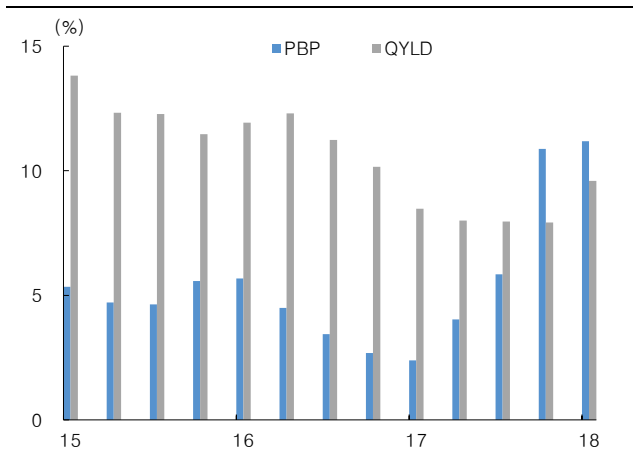
예를 들어 현재 S&P 500 포트폴리오가 2,600달러이고 만기가 1개월 남은 등가격 콜옵션 계약의 프리미엄이 50달러라면 2,650달러 이하에서는 커버드콜 전략이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 한달 간 주가가 1.9%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 커버드콜 전략의 성과가 더 뛰어난을 의미한다.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손익분기점도 낮아져 일부분 주가 하락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 1] 커버드콜 전략 손익구조



자료: CBOE,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커버드콜 전략 12M 일드 추이



주: PBP(S&P 500 커버드콜 전략 ETF), QYLD(NASDAQ 100 커버드콜 전략 ETF)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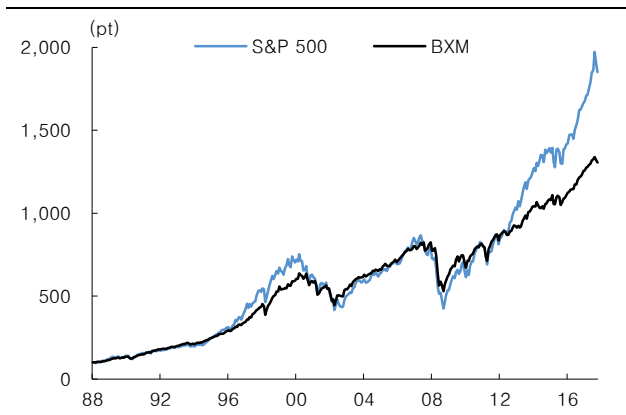
**커버드콜 전략은
횡보나 하락장에서
상대성과 뛰어나**

커버드콜 전략은 횡보나 하락장에서 전체 주식시장 대비 초과성적을 기록한다. 변동성이 지나치게 높지 않고 옵션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가지수가 일정 범위 내에 머물 때가 가장 효과적이다. 주가가 옵션 행사가격 근처에서 완만하게 움직이면서 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동성이 큰 장에서 커버드콜 전략은 기초자산인 주식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이 전략은 완벽하게 주가의 하락분을 헤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폭 대비 옵션 프리미엄만큼만 손실을 줄여준다. 반면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업사이드가 제한된다. 주가가 크게 상승해 행사가격을 초과하게 되면 콜옵션은 내가격 상태가 되어 행사되고 콜옵션 매도자의 수익은 옵션 프리미엄에 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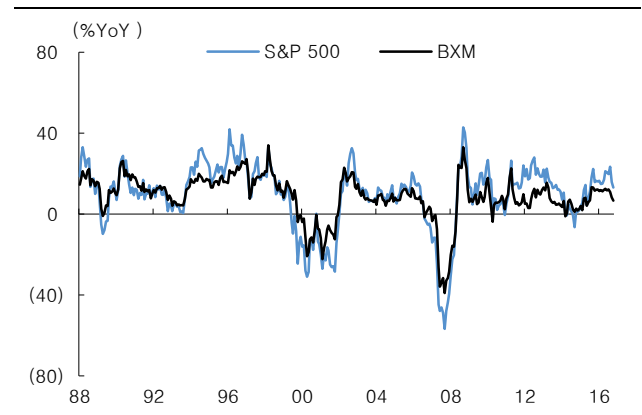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볼 때 커버드콜 전략은 주가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추이를 나타낸다. 지난해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는 주가지수 대비 성과가 낮지만 횡보나 약세장에서는 상대성과가 뛰어났다. 올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지난해보다 확대된 가운데 미래의 주식 기대수익률이 높지 않아 커버드콜 전략의 상대성과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그림 3] 미국 주식과 커버드콜 지수 추이



주: BXM(S&P 500 커버드콜 전략 지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4] 미국 주식과 커버드콜 전략 수익률



주: BXM(S&P 500 커버드콜 전략 지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장기적으로 뛰어난 위험조정 수익률

커버드콜 전략, 장기
위험조정 수익률 뛰어나

단기적으로 커버드콜 전략의 상대성과는 시장 방향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커버드콜 전략은 많은 장점이 있다. 단순히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때보다 위험조정 수익률이 개선되고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도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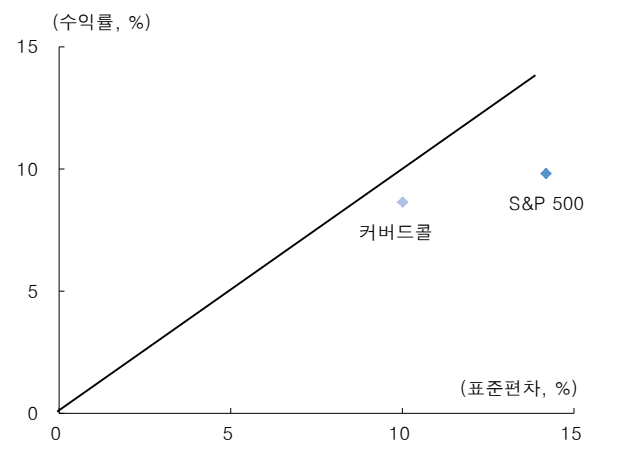
지난 30년 기간을 살펴볼 때 S&P 500과 커버드콜 전략(BMX)의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9.8%, 8.6% 수준이다. 반면 커버드콜 전략의 변동성은 S&P 500 변동성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수익률을 표준편차로 나눈 위험조정 수익률 측면에서 커버드콜 전략(0.86)은 전체 주식시장(0.69)에 비해 낮은 변동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수익을 거뒀음을 알 수 있다.

주식시장 제한적 흐름
예상한다면 커버드콜
전략 유리할 수 있어

커버드콜 전략의 월 수익률 분포를 보면 평균을 중심으로 몰려 있고 전체 시장 대비 극단적인 하락위험을 일부 방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P 500과 커버드콜 전략 수익률의 산포도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을 때는 커버드콜 전략이 유리하고 아래 있을 때는 S&P 500 투자가 유리함을 나타낸다. 올 한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보다 제한적인 흐름을 예상한다면 커버드콜 전략이 유리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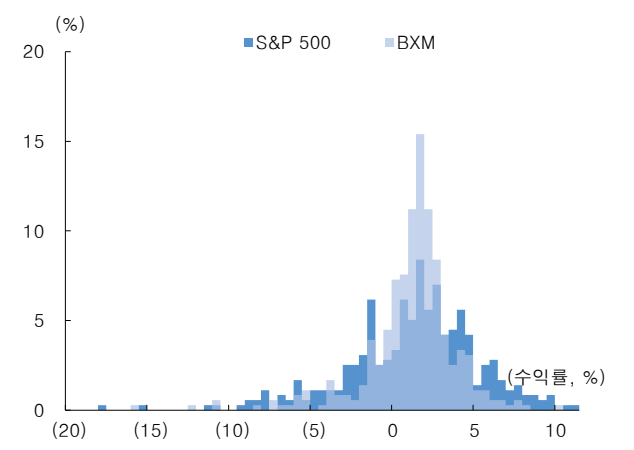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옵션 프리미엄은 내재변동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기대변동성이 확대된다면 옵션 매도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도 높아진다. 지난해보다 주식시장의 기대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커버드콜 전략의 일드 매력은 한층 부각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5] 커버드콜 전략의 높은 위험조정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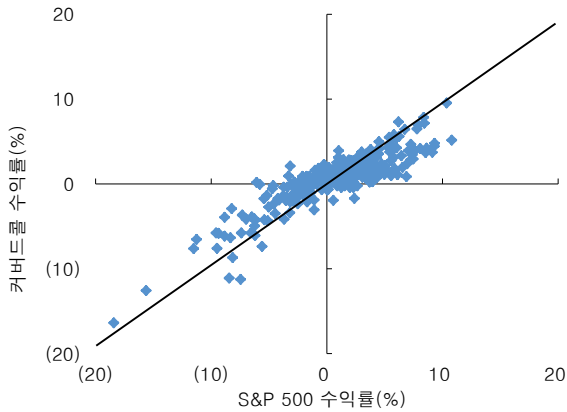
주: 지난 30년간의 연환산 수익률과 표준편차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미 주식과 커버드콜 전략의 수익률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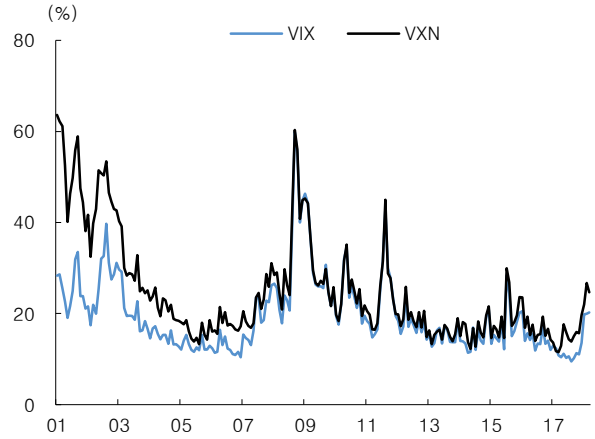
주: BMX(S&P 500 커버드콜 전략 지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7] 미 주식 vs 커버드콜 전략 월수익률 산포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 추이



주: VIX(S&P 500 변동성 지수), VXN(Nasdaq 변동성 지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1> 글로벌 커버드콜 ETF 리스트

(단위: 백만 달러)

ETF 명	티커	총자산	종목수(개)	YTD(%)	비용(%)	설정일
PowerShares S&P 500 BuyWrite Portfolio	PBP	306	506	(1.2)	0.75	2007-12-20
Horizons NASDAQ-100 Covered Call ETF	QYLD	203	104	0.8	0.60	2013-12-12
WisdomTree CBOE S&P 500 PutWrite Strategy Fund	PUTW	199	2	(2.0)	0.38	2016-02-24
Cambria Core Equity ETF	CCOR	94	50	(2.8)	1.05	2017-05-24
Horizons S&P 500 Covered Call ETF	HSPX	44	506	(1.5)	0.65	2013-06-24
AdvisorShares STAR Global Buy-Write ETF	VEGA	17	12	(1.8)	2.05	2012-09-17
Amplify YieldShares CWP Dividend & Option Income ETF	DIVO	14	23	(1.7)	0.96	2016-12-14

주: 4월 10일 기준
 자료: ETFdb.com, 한국투자증권

PowerShares S&P 500 BuyWrite Portfolio(PBP)

S&P 500 커버드콜 전략의 성과를 추종하는 ETF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직접 옵션을 매도하는 번거로움 없이 커버드콜 ETF를 활용할 수 있다. PowerShares S&P 500 BuyWrite Portfolio(PBP)는 S&P 500 지수에 대한 커버드콜 전략 ETF다.

이 ETF는 CBOE S&P 500 BuyWrite 지수(BXM)의 성과를 추종한다. BXM은 S&P 500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의 성과를 나타낸다. S&P 500 포트폴리오 매수와 해당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등가격 콜옵션 매도는 동일한 사이즈로 '커버'된다. 매월 콜옵션 만기날이 되면 새로운 등가격의 콜옵션을 매도해 롤오버한다. S&P 500 편입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은 주식 포트폴리오에 재투자된다.

PBP는 2007년에 설정되어 가장 오래된 옵션 전략 ETF 가운데 하나이다. 90% 이상을 S&P 500에 투자하기 때문에 ETF 포트폴리오 역시 대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중형주 비중이 소폭 높다. 최근 12개월 일드는 11.2% 수준으로 매우 높아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한가지 고려할 부분으로 해당 ETF는 연 0.75%의 보수가 발생하며 이는 대형주를 거래하는 펀드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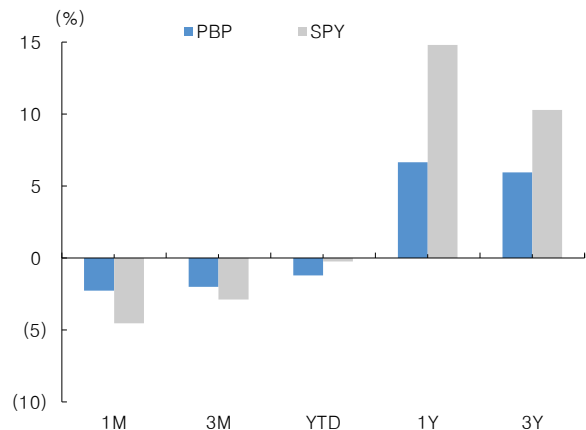
2016년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1년과 3년 성과는 S&P 500 ETF (SPY) 대비 낮지만 2월 이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성과는 높게 나타났다. 올 한해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이 높지 않고 박스권 움직임을 보인다면 전체 주식시장 대비 커버드콜 전략의 초과성과는 높아질 것이다.

[그림 9] PowerShares S&P 500 BuyWrite Portfolio 개요

구분	내용
ETF명	PowerShares S&P 500 BuyWrite Portfolio
ETF 티커	PBP US Equity
벤치마크	CBOE S&P 500 BuyWrite Index
시가총액(백만 달러)	304
최근 1개월 수익률(%)	(2.27)
최근 3개월 수익률(%)	(2.00)
30일 평균 거래량(만주)	14.1
비용지급비율(%)	0.75
최근 12개월 일드(%)	11.2
설정일	2007년 12월 20일

주: 4월 11일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PBP와 SPY 수익률



주: SPY(SPDR S&P 500 ETF Trust), 4월 10일 총수익률 기준(1년 이상은 연환산)
 자료: ETF.com, 한국투자증권

Horizons Nasdaq-100 Covered Call ETF(QYLD)

나스닥 100 커버드콜 전략의 성과를 추종하는 ETF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는 나스닥에, 꾸준한 주식배당을 원할 때는 S&P 500에 투자한다. 일반적으로 성장여력이 큰 기술기업은 배당을 지급하는 대신 투자에 주력하기 때문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배당률은 1.9%와 0.8%로 1%p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나 기술주 투자와 동시에 인컴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나스닥 커버드콜을 고려할 수 있다.

Horizons Nasdaq-100 Covered Call ETF(QYLD)는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서도 높은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수단이다. 이 ETF는 CBOE NASDAQ-100 BuyWrite V2 지수(BXNT)의 성과를 추종한다. BXNT는 나스닥 100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동시에 기초자산을 나스닥 100으로 하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지수다.

QYLD는 나스닥 100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콜옵션 프리미엄을 매월마다 분배하는데 나스닥 지수에 비해 연간 배당률(9.8%)이 매우 높다. 그러나 커버드콜 전략의 특성상 지수 하락에 대해 완벽한 헤지가 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대표적인 나스닥 ETF인 QQQ는 0.2%의 보수가 발생하는 반면 QYLD는 0.6%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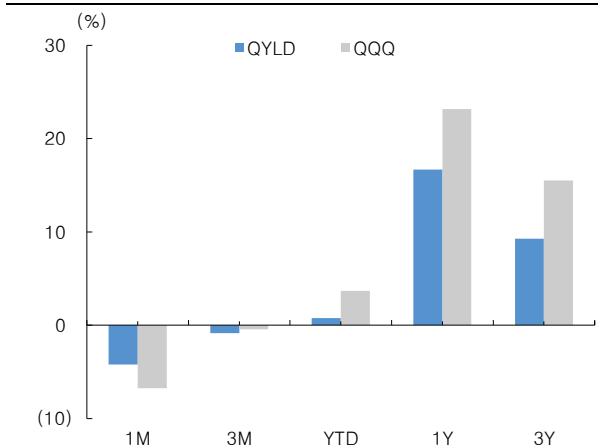
올해 초까지 4차 산업혁명과 성장주 랠리가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의 성과가 커버드콜 전략보다 뛰어났다. 다만 최근 기술주 조정에서는 일정 부분 하락방어 효과가 나타났다. QYLD는 장기적인 상대성과는 낮지만 변동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커버드콜 전략의 연환산 변동성은 17%로 나스닥 100(25%) 대비 2/3 수준이다.

[그림 11] Horizons Nasdaq-100 Covered Call ETF 개요

구분	내용
ETF명	Horizons Nasdaq-100 Covered Call ETF
ETF 티커	QYLD US Equity
벤치마크	CBOE NASDAQ-100 BuyWrite V2 Index
시가총액(백만 달러)	202
최근 1개월 수익률(%)	(4.22)
최근 3개월 수익률(%)	(0.86)
30일 평균 거래량(만주)	10.6
비용지급비율(%)	0.6
최근 12개월 일드(%)	9.6
설정일	2013년 12월 12일

주: 4월 11일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QYLD vs QQQ 수익률



주: QQQ(PowerShares QQQ Trust), 4월 10일 총수익률 기준(1년 이상은 연환산)
자료: ETF.com,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현대에이치씨엔(126560)

중립(유지)

1Q18 Preview: 손익 정체되나 M&A 가치는 상승

1분기 실적은 전년동기 수준으로 추정

1분기 수익성은 전년동기 수준으로 추정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19억원, 123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슷할 전망이다. 방송 매출액은 가입자당 매출액(ARPU) 감소로, 유선통신 매출액은 가입자수 감소로 줄어들 것이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도 수수료 인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렌탈 판매는 증가 추세다. 수익성은 홈쇼핑 수수료 인하, 콘텐츠 구매 가격 상승으로 정체되고 있다.

가입자 감소, 매출 정체

18년 매출액은 통신매출 감소에도 렌탈 등 신규사업 매출이 늘어 전년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익성은 하락할 것이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인하되고 콘텐츠 구매비용이 인상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금흐름이 양호해 17년 현금이 3,169억원에 달했다. 대규모 현금은 18년에 M&A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8년 12월에 딜라이브에서 물적 분할될 서초디지털 방송을 335억원(가입자수 5만명)에 인수한다. 가입자당 인수가격은 60만원을 상회하나 가입자당 매출액이 높은 우량 가입자를 인수하고 서초권역 경쟁업체를 인수해 경쟁이 완화될 것이다.

투자의견 중립 유지

현대에이치씨엔에 대한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IPTV와의 경쟁으로 가입자가 줄어들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감소하며 콘텐츠 비용이 늘어 수익성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면 유료방송 시장 구조조정이 앞당겨져 M&A 가치가 상승할 전망이다. 보유 현금이 많아 EV/EBITDA가 1.6배로 낮고 가입자당 기업가치가 11만원에 그치는 점은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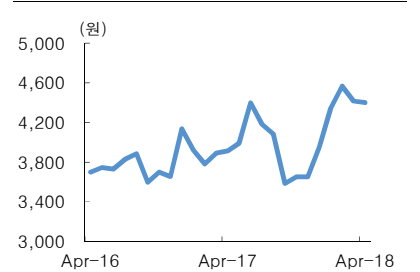
Stock Data

KOSPI(4/11)	2,444
주가(4/11)	4,400
시가총액(십억원)	497
발행주식수(백만)	113
52주 최고/최저가(원)	4,590/3,520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305
유동주식비율/외국인지분율(%)	31.4/19.2
주요주주(%)	현대홈쇼핑 외 4인 66.2
	FIDELITY 9.1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6	21.2	12.8
KOSPI 대비(%p)	3.2	21.8	(2.3)

주가추이



자료: WISEfn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6A	292	49	44	412	20.1	95	10.0	1.6	0.7	7.4	1.0
2017A	290	49	44	395	(4.1)	91	10.0	1.3	0.7	6.7	1.3
2018F	293	49	42	382	(3.2)	90	11.5	1.6	0.7	6.1	1.1
2019F	299	49	43	387	1.2	88	11.4	1.5	0.7	5.9	1.1
2020F	298	49	42	385	(0.4)	85	11.4	1.4	0.6	5.5	1.1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양종인

jiyang@truefriend.com

조민영

minyoung@truefrien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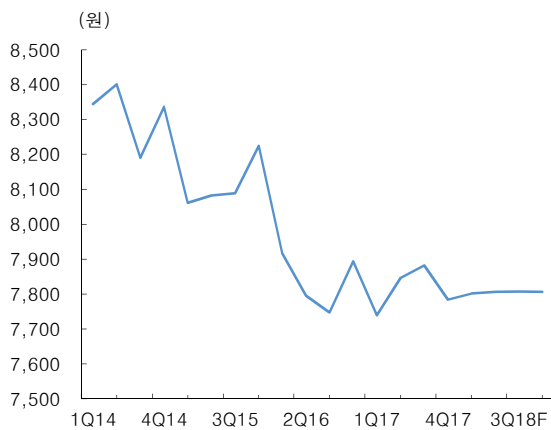
<표 1> 분기 실적

(단위: 천명, 원, 십억원, %, %p)

	2017				2018				2017	2018F	1Q18F	
	1Q	2Q	3Q	4Q	1QF	2QF	3QF	4QF			QoQ	YoY
매출액	71.9	74.5	75.6	68.3	71.9	73.1	73.9	74.1	290.2	293.0	5.3	0.0
방송수익	30.8	31.3	31.3	30.8	30.7	30.6	30.6	30.5	124.2	122.4	(0.2)	(0.3)
유선	12.7	12.5	12.5	12.4	12.2	12.1	11.9	11.7	50.1	48.0	(1.4)	(3.4)
초고속인터넷	10.4	10.2	10.3	10.2	10.1	10.0	9.9	9.8	41.1	39.8	(1.2)	(2.3)
VoIP	2.3	2.3	2.2	2.2	2.1	2.1	2.0	2.0	8.9	8.2	(2.1)	(8.5)
플랫폼	25.6	26.5	26.5	21.8	25.1	25.1	25.1	24.5	100.4	99.7	15.0	(1.9)
광고	5.3	6.2	6.2	5.2	6.1	6.1	6.1	6.1	22.9	24.5	17.3	16.4
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	20.3	20.3	20.3	16.6	19.0	19.0	19.0	18.4	77.5	75.2	14.3	(6.7)
기타	2.8	4.2	5.3	3.3	3.8	5.3	6.4	7.4	15.6	22.9	16.9	35.8
영업이익	12.5	14.2	15.1	7.4	12.3	12.9	13.1	10.4	49.3	48.7	65.9	(1.7)
영업이익률	17.4	19.1	20.0	10.8	17.1	17.6	17.8	14.0	17.0	16.6	6.2	(0.3)
세전이익	13.8	15.7	16.7	10.2	14.0	14.5	15.1	12.5	56.3	56.1	37.5	1.6
세전이익률	19.2	21.1	22.1	14.9	19.5	19.8	20.4	16.9	19.4	19.2	4.6	0.3
순이익	11.9	12.0	12.8	6.8	10.5	10.9	11.3	9.4	43.5	42.1	53.6	(12.0)
순이익률	16.6	16.1	16.9	10.0	14.6	14.9	15.3	12.7	15.0	14.4	4.6	(2.0)
지배주주순이익	11.9	12.0	12.8	6.8	10.5	10.9	11.3	9.4	43.5	42.1	53.6	(12.0)
지배주주순이익률	16.6	16.1	16.9	10.0	14.6	14.9	15.3	12.7	15.0	14.4	4.6	(2.0)
가입자(기말 기준)												
방송	1,328	1,329	1,321	1,314	1,310	1,306	1,303	1,301	1,314	1,301	(0.3)	(1.4)
아날로그	354	280	221	168	128	95	68	42	168	42	(23.8)	(63.9)
디지털	974	1,049	1,100	1,147	1,182	1,211	1,235	1,259	1,147	1,259	3.1	21.4
초고속인터넷	290	288	285	282	279	276	273	270	282	270	(1.1)	(3.8)
VoIP	157	154	150	147	144	141	138	136	147	136	(2.0)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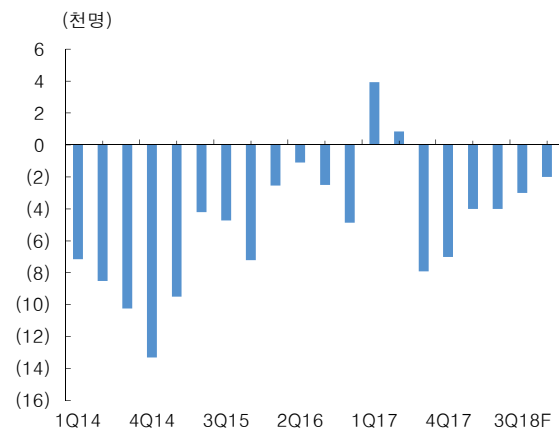
자료: 현대에이치씨엔, 한국투자증권

[그림 1] 방송 ARPU



자료: 현대에이치씨엔, 한국투자증권

[그림 2] 방송 가입자 순증



자료: 현대에이치씨엔,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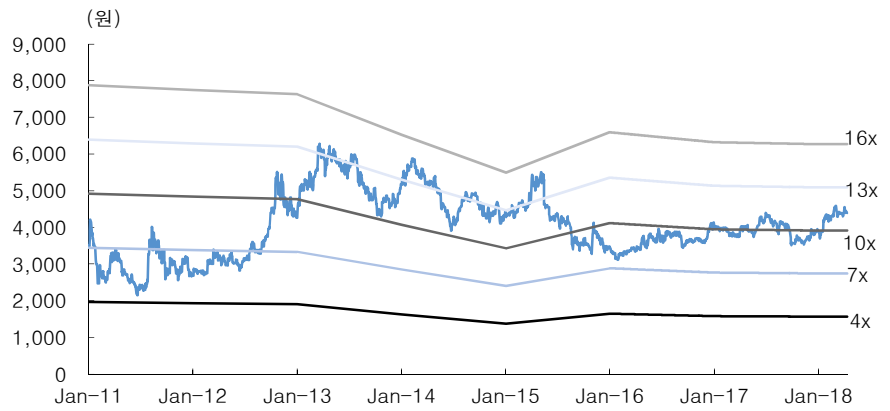
<표 2> 순현금과 EV/EBITDA

(단위: 십억원, 배)

	2015	2016	2017	2018F
순현금	230.9	279.8	316.8	345.7
EV/EBITDA	1.8	1.6	1.3	1.6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3] 12MF PER 차트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기업개요

현대에이치씨엔은 1995년 3월 케이블TV 방송을 시작한 유료방송 사업자다. SO는 서울은 서초 등 3개, 충북 1개, 경상도 3개, 부산 1개 등 총 8개다. 2002년 현대백화점 계열사로 편입됐다.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유동자산	328	361	403	415	431
현금성자산	63	32	79	81	8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7	43	56	58	57
재고자산	0	0	0	0	0
비유동자산	363	374	369	403	399
투자자산	5	23	23	57	56
유형자산	122	123	116	110	108
무형자산	213	211	213	217	216
자산총계	691	735	772	818	830
유동부채	51	55	54	60	3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2	39	28	28	28
단기차입금및단기사채	0	0	0	0	0
유동성장기부채	0	0	0	0	0
비유동부채	11	11	11	11	11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및금융부채	0	0	0	0	0
부채총계	63	66	65	72	45
지배주주지분	628	669	707	746	785
자본금	56	56	56	56	56
자본잉여금	329	329	329	329	329
기타자본	(39)	(39)	(39)	(39)	(39)
이익잉여금	282	322	359	396	433
비지배주주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628	669	707	746	785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영업활동현금흐름	96	87	69	87	52
당기순이익	46	44	42	43	4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37	32	31	29	26
무형자산상각비	10	10	10	10	10
자산부채변동	1	(5)	(14)	5	(26)
기타	2	6	0	0	0
투자활동현금흐름	(53)	(114)	(16)	(80)	(38)
유형자산투자	(20)	(24)	(24)	(24)	(24)
유형자산매각	0	0	0	0	0
투자자산순증	(19)	(82)	1	(32)	2
무형자산순증	(7)	(8)	(12)	(15)	(9)
기타	(7)	0	19	(9)	(7)
재무활동현금흐름	(14)	(4)	(6)	(6)	(6)
자본의증가	0	0	0	0	0
차입금의순증	0	0	0	0	0
배당금지급	(4)	(4)	(6)	(6)	(6)
기타	(10)	0	0	0	0
기타현금흐름	0	0	0	0	0
현금의증가	30	(31)	47	2	9

주: K-IFRS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292	290	293	299	298
매출원가	176	174	180	185	187
매출총이익	116	116	113	115	111
판매관리비	67	67	64	66	63
영업이익	49	49	49	49	49
금융수익	4	6	9	9	10
이자수익	4	5	6	6	7
금융비용	0	0	0	0	0
이자비용	0	0	0	0	0
기타영업외손익	(1)	1	1	1	1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52	56	56	57	57
법인세비용	7	13	14	14	14
연결당기순이익	46	44	42	43	42
지배주주지분순이익	44	44	42	43	42
기타포괄이익	0	2	2	2	2
총포괄이익	46	45	44	44	44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45	45	44	44	44
EBITDA	95	91	90	88	85

주요투자지표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주당지표(원)					
EPS	412	395	382	387	385
BPS	5,653	6,014	6,352	6,696	7,037
DPS	40	50	50	50	50
성장성(%, YoY)					
매출증가율	0.3	(0.6)	0.9	2.2	(0.5)
영업이익증가율	8.5	0.0	(1.2)	0.6	(0.9)
순이익증가율	20.2	(2.1)	(3.3)	1.2	(0.4)
EPS증가율	20.1	(4.1)	(3.2)	1.2	(0.4)
EBITDA증가율	2.3	(5.0)	(1.2)	(1.6)	(4.0)
수익성(%)					
영업이익률	16.9	17.0	16.6	16.4	16.3
순이익률	15.2	15.0	14.4	14.2	14.2
EBITDA Margin	32.7	31.3	30.6	29.5	28.4
ROA	6.8	6.1	5.6	5.4	5.2
ROE	7.4	6.7	6.1	5.9	5.5
배당수익률	1.0	1.3	1.1	1.1	1.1
배당성향	9.9	12.6	13.1	12.9	13.0
안정성					
순차입금(십억원)	(280)	(317)	(346)	(356)	(372)
차입금/자본총계비율(%)	0.0	0.0	0.0	0.0	0.0
Valuation(X)					
PER	10.0	10.0	11.5	11.4	11.4
PBR	0.7	0.7	0.7	0.7	0.6
EV/EBITDA	1.6	1.3	1.6	1.5	1.4

통신서비스

비중확대

통신요금 원가 공개는 규제 부담 요인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판결

12일 대법원은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시민단체가 정부에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7년 만에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2G, 3G 통신요금 원가산정과 요금심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원가 산정 자료는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다.

원가 공개는 투자심리에 부정적

통신요금 원가 공개는 통신주 투자심리에 부정적일 것이다. 요금을 심사하는 정부는 이미 원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통신요금과 원가 자료를 토대로 요금인하를 요구하면 사회적 여론은 통신업체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 원가 공개 범위가 2G(가입자 비중이 3.7%), 3G(16.3%)에서 4G(80%)로 확대되면 영향이 커질 것이다.

중장기적 규제 부담 요인

통신요금 원가 공개는 중장기적 규제 부담 요인이다. 2018년에 선택약정 할인율 5%p 상향,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실행해 단기적으로는 추가 요금인하 여력이 미미하다. 2019년 서비스 예정인 5G는 사업 초기에 대규모 적자가 예상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4G의 적정 수익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양종인

jiyang@truefriend.com

조민영

minyong@truefriend.com

4월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0%로 만장일치 동결 지속
한국은행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물가전망치를 1.7%→1.6%로 0.1%p 하향 조정
올해 국내 통화정책은 하반기에 2회(0.50%p) 가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

4월 통화정책 평가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1.50%로 만장일치 동결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들어 한국은행은 만장일치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통화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한국은행의 기존 통화정책 기조에 부합한 결과이다. 2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에서는 대다수 금융통화위원들이 한국경제의 내수부진 상황에 주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행은 4월 경제전망에서 2018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1.6%로 0.1%p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2019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2.9% 및 2.0%로 기존 전망을 고수했다.

향후 통화정책 전망

올해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2회(0.50%p) 가량을 예상하며, 금리인상 시점은 하반기에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우선, 향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 관련 외교일정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 정책기조를 감안할 때 추가 금리인상은 하반기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으로, 미국의 2/4분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한국-미국 기준금리 역전 폭(-)이 0.50%p 수준까지 확대될 경우 국내 통화정책에서도 금리인상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미국의 3회(0.75%p) 이상 금리인상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한국은 1회(0.25%p) 이상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

채권시장 영향 및 전략

향후 한국-미국 채권금리 역전(-)에 따른 영향에 주목해야 하겠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채권수익률 곡선은 모든 채권만기에서 한국보다 미국 채권금리가 높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국내의 금리역전(-) 문제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통화정책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시장에서는 내외 금리역전(-) 심화가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 통화정책에서는 한국-미국 기준금리 역전(-) 폭을 일정수준 이내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는 2/4분기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감안할 때 채권투자에서 다시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한다.

오창섭

changsob@truefriend.com

I. 통화정책 결정문 및 기자간담회 Q&A

<표 1>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요약

구분	4월 발표 내용	2월 발표 내용
기준금리 결정	·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으로 동결	·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으로 동결
세계경제 진단	· 세계경제는 견조한 성장세 지속 ·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교역관계 악화 우려 등으로 국제금리와 주가가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나타냄 ·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등에 영향받을 것	·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 · 국제금융시장은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변동성 크게 확대 ·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등에 영향받을 것
국내경제 진단	·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와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 ·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회복세 둔화 · 국내경제는 1월 전망 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임.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수출은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와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 · 고용 면에서는 1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개선세는 여전히 완만 · 국내경제는 1월 전망 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임.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수출은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물가 진단	· 소비자물가는 축산물가격 하락, 석유류가격 상승폭 둔화 등으로 1%대 초중반을 나타냄 ·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중반 기록,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 중반을 유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며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 ·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소비자물가는 축산물가격 하락, 개인서비스요금 상승폭 축소 등으로 1% 수준으로 오름세 둔화 ·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반으로 하락,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초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며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 ·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임
금융시장 방향	·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다소 높은 변동성을 나타냄.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국제금리 변동에 영향받아 하락 · 원/달러 환율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북한리스크 완화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등락 · 가계대출은 전반적인 증가규모가 축소 추세에 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 지속. 주택가격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 둔화	·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가격변수의 변동성 크게 확대. 장기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 · 원/달러 환율은 상승 후 반락 · 가계대출은 전반적인 증가규모가 축소 추세에 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낮은 오름세를 보였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 확대
향후 통화정책 방향	·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 ·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 · 국내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 ·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	·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 ·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 · 국내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 ·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

주: 밑줄은 전월 대비 내용상 변경 부분 표시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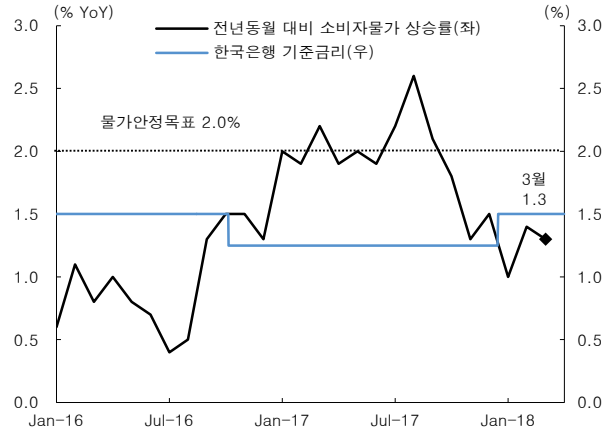
<표 2>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Q&A 요약

기자질문	한국은행 총재 답변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은 어떻게 보는가?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는 기본적으로 교역촉진법에 근거하는데, 3가지 요건 중 우리나라는 2가지만 해당.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정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중국 사드 보복의 완화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데, 이와 관련된 향후 경제상황 변화는?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3월 입국자수를 보면 중국인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경제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
자본유출보다 단기 자금 위주의 유입이 많았는데, 향후 다시 대규모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최근 유입된 단기자금의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력 대비 크지 않음.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은 중장기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단기 외채비중이 낮아 단기자금의 유출을 우려하지는 않음
미-중 무역전쟁 완화에 대한 견해는?	최근 중국이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등 개방적, 전향적 자세를 보이며 갈등이 확산되지 않는 상황. 전면적인 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겠으나 곧바로 해소되기에는 불안한 측면이 있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경우 최대 75bp 차이 날 수 있는데, 현재 경제전망 하에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한가?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하반기 1%대 중후반 도달할 것으로 예상. 물가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금리 결정시 현재 물가보다 장래 물가를 우선하기에 가능할 수 있음

자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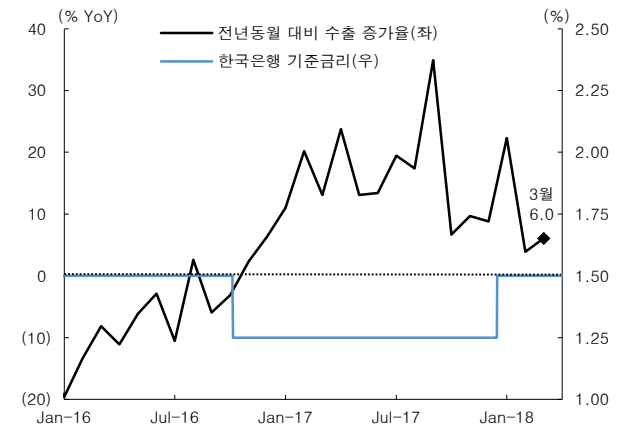
II. 한국경제 vs. 통화정책

[그림 1]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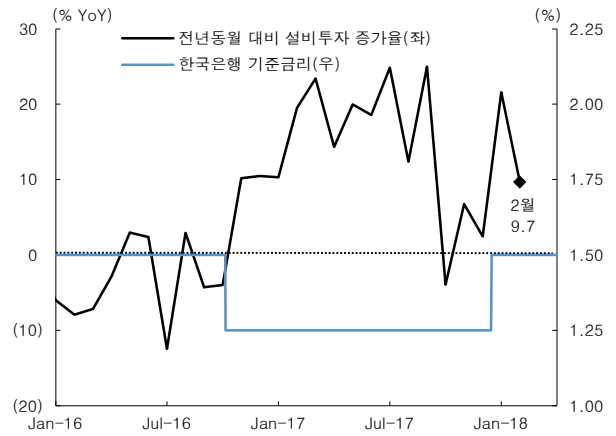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2]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수출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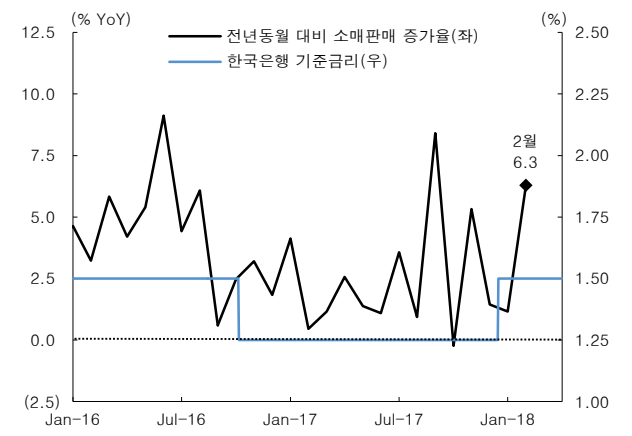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3]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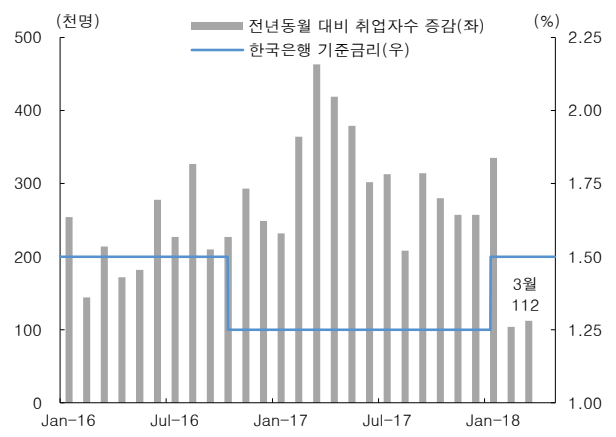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4]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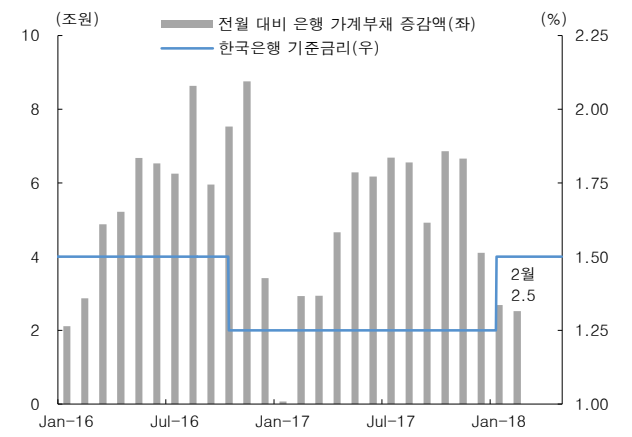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5]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취업자 증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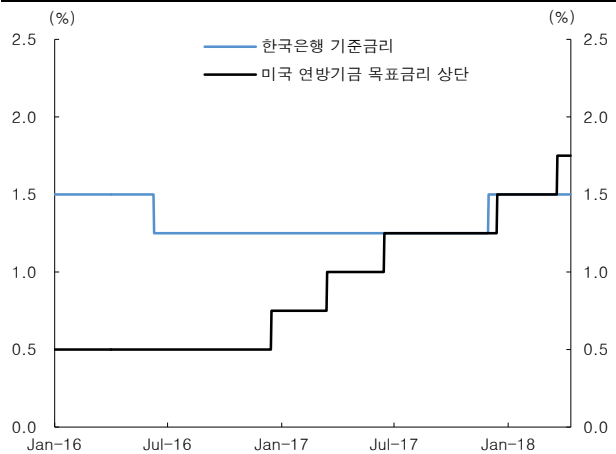
[그림 6]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은행 가계부채 증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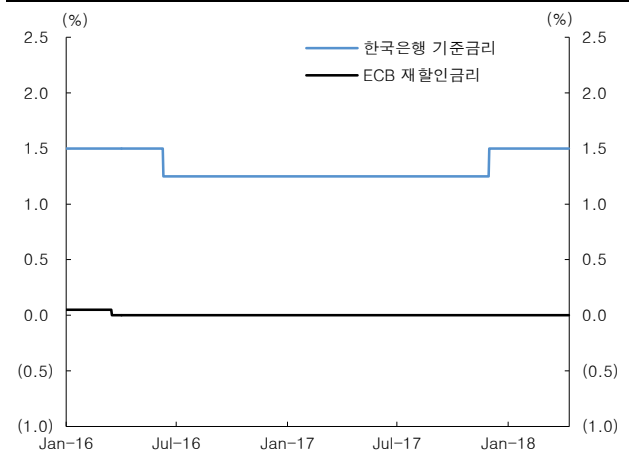
III. 금융시장 vs. 통화정책

[그림 7]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연준 정책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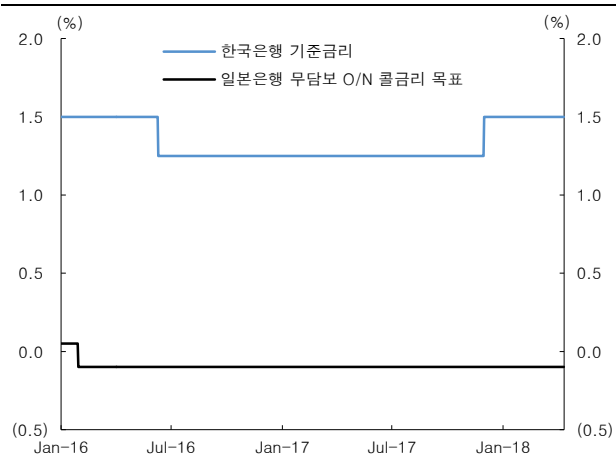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FRB, 한국투자증권

[그림 8]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ECB 정책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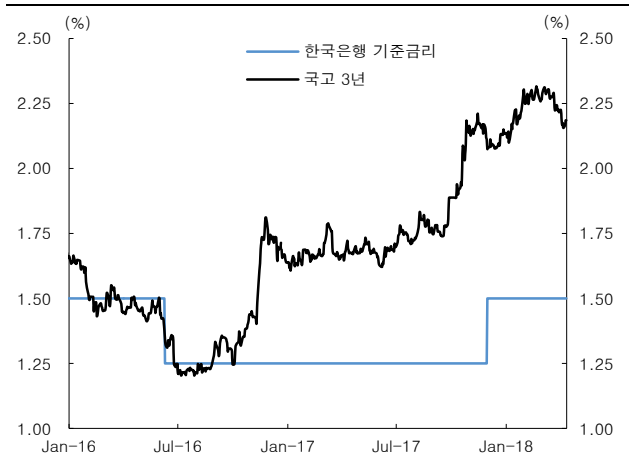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ECB, 한국투자증권

[그림 9]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일본은행 정책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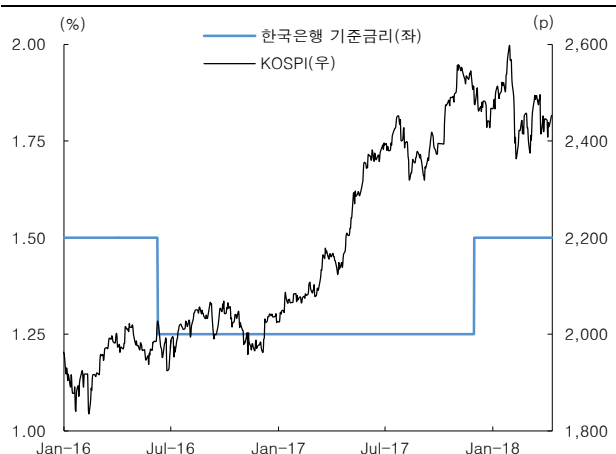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국고채 3년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KOSPI 추이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한국은행 기준금리 vs.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IV. 한국은행 경제전망 현황

〈표 3〉 한국은행 4월 세계경제 전망치

(단위: % YoY, 만명, 십억달러)

구분	2017	2018F			연간	2019F 연간
		1H	2H	연간		
세계경제성장률	3.7	3.8	3.7	3.8	3.8	3.7
미국	2.3	2.7	2.7	2.7	2.7	2.6
유럽	2.3	2.5	2.0	2.2	2.2	2.0
일본	1.7	1.6	1.1	1.3	1.3	0.9
중국	6.9	6.6	6.4	6.5	6.5	6.3
세계교역성장률	4.4	4.3	4.0	4.1	4.1	4.0
원유도입단가(달러/배럴)	53	64	60	62	62	60
기타원자재가격상승률(%)	6.5	-	-	1.0	1.0	1.0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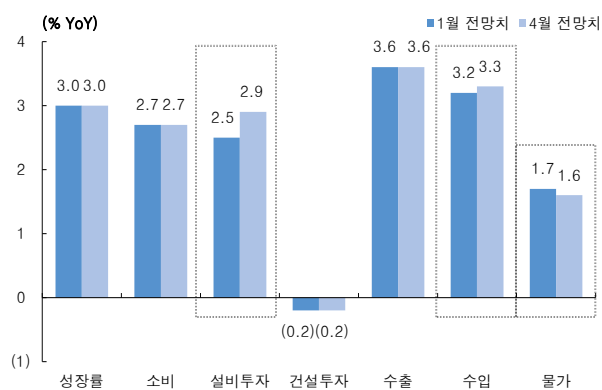
〈표 4〉 한국은행 4월 국내경제 전망치

(단위: % YoY, 만명, 십억달러)

구분	2017	2018F			KIS	2019F 연간
		1H	2H	연간		
GDP 성장률	3.1	3.0	2.9	3.0	3.2	2.9
(소비)	2.6	3.1	2.3	2.7	2.8	2.7
(설비투자)	14.6	5.0	0.9	2.9	10.6	2.6
(건설투자)	7.6	1.6	(1.8)	(0.2)	0.5	(2.0)
(수출)	3.8	2.8	4.3	3.6	4.7	3.6
(수입)	7.4	2.9	3.7	3.3	7.1	3.2
소비자물가	1.9	1.4	1.7	1.6	1.9	2.0
(근원물가)	1.5	1.3	1.8	1.6	-	1.9
실업률	3.7	4.1	3.4	3.8	3.7	3.7
(고용률)	60.8	60.5	61.5	61.0	-	61.4
(취업자 증감)	32	21	30	26	-	29
경상수지	78.5	28.0	42.5	70.5	65.0	70.0
(상품수지)	1,199	545	605	1,150	-	1,140
(서비스수지)	(345)	(175)	(165)	(340)	-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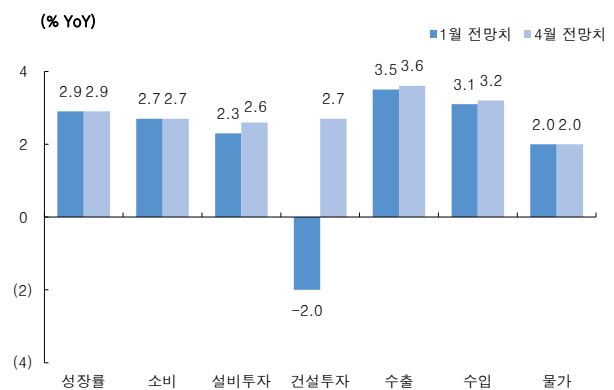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2018년 국내경제 전망치 현황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그림 14] 2019년 국내경제 전망치 현황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V. 한국투자증권 국내외 경제전망

〈표 5〉 KIS 국내경제 전망치

구분	2017	2018F					2019F
		1Q	2Q	3Q	4Q	연간	연간
GDP 성장률(% YoY)	3.1	3.1	3.2	3.0	3.3	3.2	2.8
소비(% YoY)	2.5	3.3	2.9	2.4	2.7	2.8	2.8
설비투자(% YoY)	14.3	10.6	10.1	11.4	10.5	10.6	3.2
건설투자(% YoY)	7.2	0.5	0.4	1.0	(0.1)	0.5	-
수출(% YoY)	3.6	5.3	5.3	4.1	4.0	4.7	-
수입(% YoY)	7.3	7.4	7.2	7.0	6.9	7.1	-
소비자물가(% YoY)	1.9	1.3	2.0	1.9	1.9	1.8	2.0
실업률(%)	3.7	4.3	3.7	3.7	3.7	3.7	3.7
경상수지(십억달러)	79.7	18.5	13.3	20.7	12.5	65.0	74.0
무역수지(십억달러)	95.8	14.9	26.1	25.7	14.5	81.2	-
기준금리(% 기말)	1.50	1.50	1.75	1.75	2.00	2.00	2.50
국고 3년(% 평균)	1.80	2.25	2.30	2.40	2.50	2.35	2.70
국고 10년(% 평균)	2.28	2.75	2.80	2.85	2.90	2.85	3.10
원/달러(원, 평균)	1,131.0	1,070.0	1,080.0	1,100.0	1,090.0	1,070.0	1085.0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표 6〉 KIS 해외경제 전망치

구분	2017	2018F					2019F	
		1Q	2Q	3Q	4Q	연간	연간	
미 국	성장률(% QoQ AR)	2.3	2.5	2.7	2.6	2.6	2.7	2.5
	소비자물가(% YoY)	2.1	1.9	2.3	2.3	2.1	2.2	2.2
	기준금리(% 기말)	1.50	1.75	2.00	2.00	2.25	2.25	3.00
	국채 10년(% 평균)	2.33	2.75	2.90	2.95	3.00	2.90	3.30
유 로	성장률(% QoQ AR)	2.1	2.0	2.0	2.0	1.6	2.0	2.2
	소비자물가(% YoY)	1.5	1.3	1.5	1.6	1.5	1.5	1.6
	기준금리(% 기말)	0.00	0.00	0.00	0.00	0.00	0.00	0.25
	달러/유로(달러, 평균)	1.13	1.23	1.21	1.23	1.25	1.23	1.23
일 본	성장률(% QoQ AR)	1.8	1.7	1.5	1.2	1.2	1.3	1.0
	소비자물가(% YoY)	0.5	1.2	0.9	1.1	0.8	1.0	1.1
	기준금리(% 기말)	0.00	(0.10)	(0.10)	(0.10)	(0.10)	(0.10)	0.00
	엔/달러(엔, 평균)	113.0	108.0	105.0	107.0	105.0	108.0	106.0
중 국	성장률(% YoY)	6.7	6.6	6.5	6.5	6.5	6.5	6.2
	소비자물가(% YoY)	1.6	2.4	2.3	2.3	2.1	2.3	2.3
	위안/달러(위안, 평균)	6.76	6.40	6.50	6.60	6.50	6.40	6.50
유가 WTI 유가(달러/Barrel, 평균)	50.9	63.0	62.0	61.0	60.0	62.0	59.0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VI.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

<표 7> 2월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별 정책의견

구분	의견	이유
금융통화위원 1	물가상승률 하락 기조를 반전시킬 때까지 현 기준금리(1.50%) 유지	<p>주요 선진국 경제는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이너스(-) GDP 갭이 거의 해소되거나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 미국의 경우 원전고용 달성 및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압력 발생</p> <p>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2년동안 1%대 초반까지 완만하게 하락. 세계경제 호조에 따라 수출은 건설한 증가세를 보이나 내수회복세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p> <p>고용의 경우 내수 위주의 서비스업에서 고용증가세 둔화 지속</p> <p>물가상승률의 하락으로 실질금리 상승. 우리나라의 실질기준금리는 플러스 구간에 진입한 가운데 현재 기준금리(1.5%)의 완화 정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p> <p>내수회복을 통한 물가상승률의 제고가 통화정책의 일차적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p>
금융통화위원 2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현 기준금리(1.50%) 유지하여 통화완화기조 지속 필요	<p>원자재가격 안정 및 교역 증가세 등에 힘입어 신흥국의 경기 회복세 지속. 그러나 리플레이션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로 신흥국 자본유출 및 자산가격 재평가 위험 잠재</p> <p>국내 실물경제는 건설투자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하며 소비도 완만한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전망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p> <p>물가는 축산물가격 하락, 원화 강세의 영향 등으로 크게 둔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폭이 둔화되며 근원물가상승률 하락. 하반기 최저임금 인상 및 원자재가격 상승 효과 기대되나 유흥생산력 상승 등으로 반등 모멘텀은 강하지 않을 것</p> <p>수출호조에에도 불구하고 장차산업의 생산 부진으로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근래 최저수준으로 하락</p> <p>고용의 경우 건설 및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시간갭과 참여율 증가로 유흥노동력 소폭 확대되는 모습. 서비스업 업황 개선으로 고용시장 회복세가 예상되나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국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주시해야할 것</p> <p>자본시장에서는 글로벌 장기금리가 큰 폭 상승함에 따라 국내 장기금리도 동조화되며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짐. 주식시장의 경우 외국인자금 유출로 주가 조정과 변동성 확대 발생. 채권시장의 경우 내외금리 역전(-) 및 단기물 선호성향 확대로 기간프리미엄 상승. 한편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및 외화유동성은 안정된 모습</p> <p>신용시장에서는 여신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련 신용대출 증가. 향후 주택경기 및 가계부채 안정화 추이를 신중히 지켜보아야 할 것</p> <p>역스필오버 효과로 인한 국내 금융여건의 긴축화 가능성, 내외금리차 역전(-)에 따른 자본흐름 변화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p> <p>구조조정 가속화로 실질중립금리 상승을 도모하여 향후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야할 것</p>
금융통화위원 3	현 기준금리(1.50%) 유지	<p>물가상승기조는 1분기 저점 형성 후 반등 전망. 글로벌 물가 상승할 경우 공업제품 가격이 오르며 목표치 근접 예상.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가격규제 등 외적요인으로 작년 4분기부터 가파르게 하락하였으나 근원물가의 추세는 약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p> <p>소비의 경우 기조적 개선흐름 지속</p> <p>투자의 경우 설비투자는 높은 수준에서 완만하게 조정되는 모습. 건설투자는 조정국면에 계속되고 있으나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소폭의 플러스 GDP 갭 유지 예상</p> <p>지속적 완화정책으로 과잉건설투자, 부동산자금 공급증가 등이 발생하여 공실을 확대 예상</p> <p>글로벌 경기 개선 지속은 국내 중립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현 정책금리 수준에서도 통화정책 완화정도 확대될 것</p> <p>고령화, 자본집약적 기술혁신, 노동시장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로 필립스곡선을 통한 물가상승 경로는 상당폭 제한됨.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비대칭적 노동시장 구조로 임금상승률이 가져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며 수요진작 정책 효과 상쇄</p>
금융통화위원 4	물가 측면에서 여유가 있으므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	<p>세계적 주가조정 및 장기금리 상승,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 물가안정목표 이탈가능성 등으로 경제주체심리가 위축되었으나 성장과 물가의 전망경로에는 상방압력도 혼재하는 것으로 판단</p> <p>경기민감물가지수 상승률이 1%대 후반 수준인 것으로 보아 물가상승률은 시차를 두고 경기회복세를 따라갈 것</p> <p>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님. 다만 자산가격 고평가 논란과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하겠음</p>
금융통화위원 5	물가상승 압력은 현재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므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동결	<p>세계경제 및 교역의 회복세 확대로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1~2월 중 10% 내외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됨</p> <p>투자의 경우 IT 산업의 설비투자가 활발한 반면, 건설투자는 둔화 추세 진입</p> <p>소비의 경우 1월 지표에서는 회복세 확대 조짐이 분명하지 않아 2월 이후의 민간소비 흐름을 주시해야할 것</p> <p>취업자수 증가폭은 확대되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회복과 고용개선 진작 효과는 미흡</p> <p>물가는 작년 하반기의 하락세가 지속됨. 물가상승률 둔화폭은 예상보다 큰 수준으로 정부정책 등의 물가여건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p>
금융통화위원 6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면서 실물경제 동향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p>세계경제의 호조세에 힘입어 국내경제 또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나 체감 정도는 미약</p> <p>민간소비의 경우 소매판매 및 서비스 소비는 증가할 전망이나 지켜볼 필요가 있음</p> <p>설비투자의 경우 자동차산업 문제, 조선 등 취약업종 상황 등을 분석하고 수출과 고용상황 변화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할 것</p> <p>건설투자는 예상대로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진입</p> <p>소비자물가의 경우 예상보다 하방리스크가 커질 가능성.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에 이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p> <p>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고 GDP 갭도 큰 폭의 플러스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p> <p>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민간소비 회복세와 고용여건 개선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p> <p>금융불균형 누적에 유의하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노력 필요</p> <p>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3월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할 것</p>

자료: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제약바이오주 조정 속 옵션만기를 맞아 약보합세로 마감

-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공습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3대 지수가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섬.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 이틀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며 장중 내내 상승을 주도했으나 금융투자와 개인 매도세로 상승분을 반납하며 약보합세로 마감. 코스닥도 개인 매수에 힘입어 장중 890P선을 회복하는 듯 했으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에 장 후반 하락전환하며 881P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국내 주택부문 이익을 바탕으로 한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림산업이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으며, 해외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실적 증가 기대감에 비에이치가 초강세를 보임.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호황에 따른 실적 호조 전망에 삼성전기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e스포츠 스트리밍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된 아프리카TV가 신고가를 경신.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박람회 개최되며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2차전지 등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업황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반도체 업종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임. 반면,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로 국제유가가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 유가 상승 영향으로 항공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으며, 금융감독원이 R&D 비용과 관련해 논란이 된 제약·바이오 기업 10곳에 대해 감리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관련 기업들을 비롯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용
대림산업(000210) ▶80,000 (+5.26%)	실적 성장 지속 전망에 견조한 오름세 - 해외 수주 모멘텀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국내 주택부문 이익을 바탕으로 한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견조한 오름세 - 아울러, 올해 기준 PBR 0.5배로 역사적 저점 수준이며, 해외 및 토목 부문 손실 축소 및 주택 부문 이익 확대로 안정적인 이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
비에이치(090460) ▶23,700 (+12.3%)	실적 개선 기대감에 초강세 - 해외 고객사가 하반기 총 3개의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제품용 부품 양산이 2분기부터 시작돼 이에 따른 실적 증가 전망에 초강세 - 한편, 1분기 실적은 북미 거래선의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30.6%, 314.4% 증가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
전기차 관련주	'EV 트렌드 코리아 2018' 개막에 강세 -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박람회인 'EV 트렌드 코리아 2018' 개막으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현대차가 소형 SUV 전기차를 국내 처음 공개하는 등 라인업 강화 기대감에 강세 - 삼화콘덴서(001820, +9.62%), 상신이디피(091580, +7.73%), 아비코전자(036010, +6.98%), 솔브레인(036830, +6.67%), 삼화전기(009470, +6.47%), 상아프론테크(089980, +5.13%), 뉴인텍(012340, +4.89%) 등 강세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업황 호조에 강세 - 반도체 업황 호조로 삼성전자가 2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반도체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도 다소 완화되며 이틀 연속 강세 - 테스(095610, +7.68%), 예스티(122640, +6.55%), 원익머트리얼즈(104830, +6.53%), 에스앤에스텍(101490, +5.09%), 이오테크닉스(039030, +4.09%), SKC 솔믹스(057500, +4.06%), SK하이닉스(000660, +3.45%)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용
셀루메드(049180) ▶14,950 (+24.18%)	- 미국 식품의약청으로부터 골이식재 'Rafugen DBM'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원종물산(008290) ▶6,770 (+15.92%)	- 투자한 미국의 바이오신약업체인 켈마다테라퓨틱사가 화이자 임상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소식에 임상중인 신약의 임상 및 상업화 가속화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코텍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코텍 (052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슬롯머신 1위, 2위 업체를 고객사로 보유한 카지노용 모니터 생산 기업으로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전망 - 고객사의 커버드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제품믹스 개선으로 카지노모니터 부문의 영업이익률 상승 예상 - 현금성자산이 시가총액의 절반을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 구조 보유로 배당 확대 여력 충분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7. 12	320	33	23	1,568	10.4
	2018. 12F	353	41	36	2,406	6.3

- 편입 제외 종목: TPC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제외 -11.4%)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서진시스템 (178320)	37,700 (-1.2)	38,150 (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가공 기술 및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방 산업과 고객사 다변화가 동시에 진행 - 상장 첫 해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 소멸 및 가동률 상승에 따른 원가 개선 예상 - 기존 사업군인 통신장비, 모바일, 반도체 부품 사업 더불어 ESS 및 자동차 부품의 매출액은 빠르게 늘어날 전망
롯데정밀화학 (004000)	69,900 (-7.0)	75,200 (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법 이익 급증과 전 사업부 실적 호조로 2018년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 전망 - 향후 2~3년 동안은 제한적인 증설로 ECH(Epichlorohydrine)와 가성소다 가격은 강세 기조를 지속할 전망 - 주주친화정책 강화에 따라 배당성향은 30%까지 확대될 전망
쌍용양회 (003410)	22,700 (+14.4)	19,850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열발전 투자 마무리와 수출량 증가로 안정적 성장 전망 - 내륙과 해안공장을 모두 보유해 전국권 커버와 13개국 수출이 가능하고 대한시멘트 인수로 슬래그시멘트 시장 장악 - 2017년 잉여현금흐름의 60%를 배당으로 환원하는 고배당 정책을 시작하여 2018년 기준 7% 이상의 배당수익률 예상
동화기업 (025900)	34,200 (-7.8)	37,100 (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2분기 본격 가동이 시작된 VRG동화 제2공장이 높은 가동률을 보이기 시작함에 따라 지속적인 외형성장 기대 - 베트남 주택분양 방식이 마감재와 빌트인 가구까지 포함되는 완성형 분양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수혜 전망 - 친환경 제품 중심 믹스 개선에 따른 하우징사업부의 이익률 개선 전망
SIMPAC Metal (090730)	13,050 (+12.5)	11,600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하반기부터 설비를 풀 가동함에 따라 금년 1분기에는 분기 최고 실적 달성 예상 - 중국의 강력한 환경규제에 따른 합금철의 공급 감소로 합금철 가격이 구조적인 강세를 이어갈 전망 - 여의도의 SIMPAC 빌딩 지분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의 6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자산가치 부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삼성전기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삼성전기 (009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부품간 전자파 간섭을 막아주는 부품) 호황이 구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수혜국면 지속 전망 - 삼성전자의 듀얼카메라 채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 증가세 지속 전망 -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S10에 3D센싱카메라가 탑재된다면 이와 관련한 모듈 제작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음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7. 12	6,838	306	162	2,139	46.8
	2018. 12F	8,016	702	427	5,656	19.3

- 편입 제외 종목: SK텔레콤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제외 -13.5%)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8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현대중공업주 (267250)	426,500 (-1.8)	434,500 (2/27)	25,018	2,175	1,170	79,950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고도화에 따른 자회사 현대오일뱅크의 정유 매출 큰 폭 증가 - 올해 안에 유류 정유 생산능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아시아 spot 정제마진 역사적 고점 돌파 전망 - 3월 현대오일뱅크의 고배당 지급이 예상되며, 현대오일뱅크 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 전망 				
이마트 (139480)	276,500 (-3.0)	285,000 (2/7)	18,167	613	474	17,013	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finity Equity Partners 및 BRV Capital Management와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로 온라인 사업 부문 역량 강화 전망 - 대규모 신규투자를 통해 기존의 협상력과 물류망의 경쟁우위가 확고해짐에 따라 신규 상품의 개발역력 확대 예상 - 외형성장과 함께 손익 개선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구간으로 리레이팅 본격화 가능성 상존 				
한솔시큐어 (070300)	6,870 (+16.4)	5,900 (12/28)	19	3	2	272	2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확장은 eSIM(embedded SIM)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 -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인 G+D(독일 스마트카드업체인 G&D의 자회사)의 지분 투자에 따라 시너지 효과 기대 - 2018년 하드웨어 보안을 강화하는 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사업을 재개함에 따라 보안 인식 강화에 따른 수혜 전망 				
크린앤사이언스 (045520)	15,950 (+21.8)	13,100 (12/28)	92	11	9	1,446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변화와 소독 수준 향상에 따른 공기청정기 수요의 구조적 증가 전망 -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의 중국 진출에 따른 수혜 전망 - 10월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와 신규 고객 유입 대응을 위한 MB(부직포) 증설로 레버리지 효과 기대 				
이앤티텍 (091120)	18,350 (+4.3)	17,600 (12/28)	191	14	10	659	2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일의 BA(Balanced Amature)스피커 생산 업체로 스피커 활용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 전망 - 지난해 베트남 공장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인건비 절감 예상 -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로 하반기 마이크로스피커와 리시버 관련 매출 증가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마트, 삼성전기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한국시장 주요 지표

한국 주요지수	4/12(목) 증가	등락률(%)			
		1D	5D	1M	YTD
KOSPI	2,442.71	-0.06	0.21	-1.67	-1.00
KOSPI200	313.22	0.09	0.06	-2.33	-3.55
대형주	2,358.38	-0.01	0.13	-1.94	-2.51
중형주	2,760.65	-0.39	0.36	-1.44	0.93
소형주	2,267.61	0.07	1.46	2.33	11.51
KOSDAQ	881.45	-0.44	1.44	-0.32	10.40
KOSDAQ150	1,554.38	-1.20	0.25	-3.04	9.94

수급	4/12(목)	등락률(%)			
		1D	5D	1M	YTD
거래량	KOSPI	436	371	441	394
(백만 주, 기간 평균)	KOSDAQ	987	935	871	961
거래대금	KOSPI	7,984	7,400	7,483	7,043
(십억 원, 기간 평균)	KOSDAQ	7,840	6,712	6,104	6,747

(단위: %, bp)

금리	4/12(목)	1D	5D	1M	YTD
국고채 3년물	2.16	-2.30	-0.30	-13.80	2.30
국고채 5년물	2.39	-2.00	-0.50	-15.20	3.80
국고채 10년물	2.58	-2.50	-2.80	-16.50	11.50
회사채 3년(AAA-)	2.63	-2.50	-0.50	-10.10	8.00
회사채 3년(BBB-)	8.78	-2.50	-0.50	-15.50	-1.00

(단위: 원, %)

외환	4/12(목)	1D	5D	1M	YTD
원/달러	1069.55	-0.30	-0.89	-0.41	-0.20
원/100엔	1001.27	-0.25	-1.29	-0.04	-5.43
원/유로	1321.66	-0.18	-1.60	-0.77	-3.45
원/위안	170.27	-0.07	-1.23	-1.16	-3.66

업종 지수	4/12(목)	등락률(%)			
		1D	5D	1M	YTD
KRX 업종 지수					
자동차	1,613.65	-1.06	-3.22	-0.44	-7.26
반도체	2,704.97	2.06	2.55	-3.97	-2.83
헬스케어	4,733.12	-2.7	1.95	1.17	23.09
은행	870.67	1	2.66	-7.56	-7.07
에너지화학	2,723.91	1.91	-1.29	-4.03	-1.46
철강	1843.72	-0.06	-0.82	-7.48	-10.19
방송통신	941.60	-1.16	-1.6	-2.18	-8.27
건설	609.30	0.62	4.15	1.14	8.63
증권	743.38	-0.11	-0.86	-9.27	4.33
기계장비	581.38	0.76	0.39	-7.42	8.63
보험	1703.47	-0.1	-1.79	-9.44	-12.02
운송	625.37	-3.26	-2.76	5.31	7.64
유틸리티	1,242.81	0.71	-0.19	-2.53	5.53

업종 지수	4/12(목)	등락률(%)			
		1D	5D	1M	YTD
KOSDAQ150					
기술주	1,882.37	-1.87	-0.65	-3.39	9.74
소재	1,464.02	4.04	5.90	-5.19	-6.78
산업재	293.51	0.13	0.15	-12.12	-6.18
필수소비재	1,163.47	7.06	7.07	-16.47	13.87
자유소비재	1,463.02	-3.55	0.95	18.44	25.14
정보기술	733.38	0.11	0.85	-4.73	-3.34
생명기술	5,418.41	-2.99	-1.32	-2.79	15.02
문화기술	2,392.56	-1.85	-1.45	-1.71	7.00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국가, 지자체)	기타	
유가증권	매수	4,412	1,846	1,797	470.7	92.02	209.81	154.22	25.84	257.56	389.71	58.86
	매도	4,467	1,584	1,600	728.44	82.1	219.96	138.01	16.09	217.28	395.46	68.86
	순매수	-54.83	262.33	-197.5	-257.74	9.92	-10.15	16.2	9.75	40.28	-5.76	-10
	2018년 1월 누계	806.81	125.07	-318.06	-489.12	-12.43	94.47	22.32	13.87	131.82	-79	-613.81
	2018년 누계	2192.83	-221.61	-1,723	-3,386	660.62	950.14	-151.3	0.19	-29.09	232.36	-248.1
코스닥	매수	6,954	561.41	378.82	59.12	21.66	75	73.1	5.27	46.17	7.68	48.59
	매도	6,826	596.67	288	121.71	19.84	83.36	83.56	6.05	55.45	8.86	49.65
	순매수	127.15	-35.27	-90.82	-62.6	1.83	-8.36	-10.46	-0.78	-9.29	-1.17	-1.06
	2018년 1월 누계	577.19	-64.56	-299.25	-152.56	-10.09	29.04	-50.32	-6.79	-88.02	-20.55	-213.36
	2018년 누계	2,377	-933.19	-241.3	321.13	-7.13	453.55	-617.48	-71.26	-324.43	4.25	-1202.75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IT하드웨어	566	반도체	-659	반도체	2,010	건강관리	-912
	건설,건축관련	245	소프트웨어	-564	IT하드웨어	862	조선	-171
	조선	186	운송	-320	은행	215	호텔,레저서비스	-143
	화학	179	필수소비재	-279	화학	191	상사,자본재	-110
	건강관리	160	보험	-259	화장품,의류,완구	131	철강	-99
종목	셀트리온	775	삼성전자	-965	SK하이닉스	1,214	셀트리온	-484
	삼성전기	429	삼성바이오로직스	-397	삼성전기	788	삼성물산	-281
	SK하이닉스	261	NAVER	-341	삼성전자	770	TIGER 200	-202
	KODEX 레버리지	260	KODEX 200TR	-175	KODEX 200TR	175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84
	KODEX 200	234	LG전자	-169	LG화학	167	KODEX 200	-183
	TIGER 200	203	롯데지주	-159	신한지주	139	삼성SDI	-180
	삼성SDI	148	아모레퍼시픽	-145	SK	122	현대모비스	-135
	대림산업	145	카카오	-134	대림산업	115	삼성중공업	-130
	LG이노텍	119	삼성생명	-117	롯데지주	105	POSCO	-94
	우리은행	94	현대글로비스	-101	LG이노텍	86	현대산업	-79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반도체	201	건강관리	-962	IT하드웨어	141	건강관리	-469
	IT하드웨어	185	미디어,교육	-257	필수소비재	120	반도체	-62
	디스플레이	138	소프트웨어	-109	비철,목재등	46	자동차	-51
	화학	83	비철,목재등	-91	화학	37	화장품,의류,완구	-40
	기계	13	조선	-61	조선	21	기계	-36
종목	비에이치	118	바이로메드	-194	네이처셀	118	셀트리온헬스케어	-105
	테스	99	메디포스트	-149	메디포스트	67	화진	-66
	SK머티리얼즈	86	제넥신	-142	카페24	53	차바이오텍	-64
	동진썬미켄	54	셀트리온헬스케어	-96	JYP Ent.	44	아프리카TV	-63
	SKC코오롱PI	45	컴투스	-96	컴투스	42	펍트론	-50
	솔브레인	44	에스엠	-71	비에이치	41	유니셀	-43
	풀어비스	44	스튜디오드래곤	-69	포스코캠텍	40	신라젠	-43
	아모텍	34	포스코캠텍	-64	SKC코오롱PI	40	메디톡스	-36
	코오롱티슈진	26	에이치엘비	-60	에이치엘비	32	제이콘텐트리	-27
	이녹스첨단소재	24	CJ E&M	-45	덕산네오룩스	31	디에스티로봇	-26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

KOSPI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삼성전자	314,547	2,450,000	0.29	-3.85
SK하이닉스	61,152	84,000	3.45	9.80
삼성바이오로직스	37,383	565,000	-3.25	52.29
셀트리온	36,616	298,500	0.17	35.01
현대차	33,482	152,000	1.33	-2.56
POSCO	28,031	321,500	-1.53	-3.31
LG화학	26,684	378,000	3.00	-6.67
삼성물산	26,272	138,500	-0.72	9.92
NAVER	24,953	757,000	-1.82	-12.99
KB금융	24,752	59,200	1.20	-6.62

KOSDAQ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셀트리온헬스케어	13,546	98,500	-1.60	-9.3
신라젠	7,140	104,700	0.67	12.0
메디톡스	4,106	725,800	-2.00	49.7
바이로메드	3,703	232,100	-9.51	42.1
CJ E&M	3,505	90,500	-1.52	-7.4
에이치엘비	3,360	92,200	-6.96	138.6
풀어비스	3,099	256,800	-1.08	3.7
셀트리온제약	2,979	89,300	-2.93	45.9
코오롱티슈진	2,966	48,700	-0.81	-6.0
카카오M	2,724	107,700	3.06	-4.3

Global Asset Monitor

글로벌 주식		(단위: %)				
구분	지역/국가	증가	1D	5D	1M	YTD
지역	MSCI 세계	509.43	-0.31	0.17	-3.39	-0.70
	MSCI 선진국	2,082.57	-0.36	0.09	-3.33	-0.99
	MSCI 신흥국	1,175.53	0.02	0.78	-3.82	1.47
DM	S&P500	2,642.19	-0.55	-0.09	-5.06	-1.18
	Dow Jones	24,189.45	-0.90	-0.31	-3.93	-2.14
	Nasdaq	7,069.03	-0.36	0.38	-6.84	2.40
	Russell 2000	1,546.81	0.22	0.99	-3.39	0.74
	영국 FTSE 100	7,255.21	-0.03	0.77	0.56	-5.63
	프랑스 CAC	5,273.72	-0.08	-0.06	-0.06	-0.73
	독일 DAX 30	12,285.82	-0.07	-0.16	-1.07	-4.89
	스페인 IBEX	9,733.70	-0.02	-0.07	0.06	-3.09
	일본 니케이	21,660.28	-0.12	0.07	-0.75	-4.85
	홍콩 항셱	30,831.28	-0.21	4.45	-2.42	3.05
	EM	코스피	2,442.71	-0.06	0.21	-1.67
코스닥		881.45	-0.44	1.44	-0.32	10.40
중국 상해종합		3,180.16	-0.87	1.39	-4.40	-3.84
홍콩 H지수		12,288.86	-0.29	3.64	-3.22	4.95
인도 Sensex		34,122.02	0.53	1.56	0.60	0.19
베트남 VN		1,173.02	0.51	-1.69	4.15	19.18
인도네시아 JCI		6,294.75	-1.04	1.80	-3.17	-0.96
러시아 RTS		1,109.56	2.40	-11.48	-13.53	-3.89
브라질 Bovespa		85,245.59	0.87	1.05	-1.90	11.57
멕시코 Mexbol		48,532.14	0.42	2.26	-0.29	-1.67
글로벌 업종		에너지	176.16	0.01	2.38	2.80
	소재	212.90	-0.37	0.45	-3.56	-1.34
	산업재	286.22	-0.34	-0.25	-3.71	-2.06
	경기소비재	261.38	-0.29	-0.20	-1.70	-1.46
	필수소비재	296.44	-0.21	-0.15	-2.49	-1.04
	헬스케어	530.50	0.01	-1.53	-2.46	0.44
	금융	181.04	-0.31	0.29	-3.90	-0.54
	IT	380.22	-0.01	0.24	-5.46	4.63
	통신서비스	172.71	-0.25	0.86	-2.81	-2.52
	유틸리티	168.70	-0.09	-0.17	1.07	-1.15

글로벌 환율		(단위: %)				
구분	지수/국가	증가	1D	5D	1M	YTD
지수	달러 인덱스	89.59	0.03	-0.96	-0.33	-2.75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	117.89	0.00	0.27	0.00	-1.00
미주	브라질	3.37	1.05	-1.31	-3.35	-1.84
	멕시코	18.25	-0.09	-0.23	1.88	7.74
아시아	한국	1,069.55	-0.30	-0.89	-0.41	-0.20
	일본	106.87	-0.07	0.49	-0.42	5.45
	중국	6.28	-0.24	0.30	0.72	3.54
	대만	1.29	0.09	-0.85	1.58	0.73
유럽	인도	65.37	-0.10	-0.63	-0.50	-2.29
	유로존	1.24	-0.07	0.96	0.19	2.94
	영국	1.42	-0.04	1.20	1.91	4.87
	러시아	62.16	0.43	-7.17	-8.45	-7.20

주: 달러 대비

글로벌 채권(10Y)		(단위: bp)				
지역	국가	증가	1D	5D	1M	YTD
미주	미국	2.78	-0.18	-5.30	-8.91	37.36
	캐나다	2.20	1.90	2.70	-6.80	15.70
	브라질(USD)	9.78	-7.60	2.80	19.50	-48.10
유럽	멕시코	7.36	-0.10	7.40	-19.40	-29.80
	독일	0.50	-0.10	-2.60	-13.40	7.10
	영국	1.39	0.00	-2.90	-10.50	19.90
아시아	프랑스	0.74	0.00	-1.70	-13.30	-4.60
	이탈리아	1.82	1.20	2.10	-18.80	-20.10
	러시아	4.92	-8.40	44.90	45.60	104.80
	한국	2.58	-2.50	-2.80	-16.50	11.50
인도	일본	0.04	0.20	-0.90	-1.60	-1.10
	중국	3.73	0.30	-0.80	-12.10	-17.30
	호주	2.66	-1.50	-0.20	-15.50	3.30
	인도	7.47	-6.30	29.90	-15.60	14.80

원자재		(단위: %, USD/oz, bu, MT)				
구분	지수/상품	증가	1D	5D	1M	YTD
지수	S&P 원자재 지수	466.72	1.21	4.07	5.71	5.49
	LMEX 지수	3,351.30	0.65	3.95	2.24	-1.98
	CRB 지수	440.65	0.12	1.31	-1.02	1.92
에너지	원유(WTI)	66.75	-0.10	5.05	8.78	10.48
	원유(Brent)	71.87	-0.26	5.18	10.65	7.48
	천연가스	2.66	-0.52	-0.52	-4.21	-9.89
금속	금	1,351.40	-0.38	2.05	2.32	3.22
	은	16.64	-0.79	1.71	1.00	-2.97
	구리	6,950.00	0.07	3.36	-0.17	-4.10
	아연	3,238.00	-0.15	-0.61	-1.19	-2.44
농산물	알루미늄	2,250.00	2.23	13.01	6.13	-0.79
	S&P 농산물 지수	305.94	0.00	2.74	0.50	8.43
	옥수수	394.25	-0.38	-1.00	-1.07	7.35
	밀	495.00	-1.83	2.86	-2.46	9.21
대두	1,061.00	0.21	1.82	0.95	7.91	

변동성		(단위: %)				
구분	지수	증가	1D	5D	1M	YTD
미국	VIX	19.69	-2.72	3.96	24.78	78.35
유럽	VSTOXX	16.58	-2.37	-1.90	7.67	22.72
한국	VKOSPI	15.24	-2.62	-10.51	0.73	26.37

한 눈에 보는 매크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	3	4	5	6
韓> 3월 수출 YoY(1일) (6.1%, 6.9%, 4.0%) 美> 3월 마켓 미국 제조업 PMI (55.6, 55.7, 55.7) 日> 1Q 단칸 대형 제조업지수 (24, 25, 26) 1Q 단칸 전체산업 Capex (2.3%, 1.1%, 6.4%) 中> 3월 차이신 PMI 제조업 (51.0, 51.7, 51.6)	韓> 3월 CPI YoY (1.3%, 1.4%, 1.4%) 유럽> 2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56.6, 56.6, 56.6)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3.3%, n/a, 4.8%) 2월 제조업수주 (1.2%, 1.7%, -1.3%) 2월 내구재주문 (3.0%, n/a, 3.1%)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42, 225, 218) 2월 무역수지(십억달러) (-57.6, -56.8, -56.6)	美> 3월 비농업부분고용(천건) (103, 185, 313) 3월 실업률 (4.1%, 4.0%, 4.1%)
9	10	11	12	13
日> 2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2076.0, 2196.0, 607.4)	美> 3월 PPI 최종수요 MoM (0.3%, 0.1%, 0.2%) 2월 도매재고 MoM (1.0%, 0.8%, 1.1%)	韓> 3월 실업률 SA (4.0%, 3.6%, 3.6%) 美> FOMC 회의록 공개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1.9%, n/a, -3.3%) 3월 CPI MoM (-0.1%, 0.0%, 0.2%) 日> 2월 핵심기계수주 MoM (2.1%, -2.5%, 8.2%) 3월 PPI YoY (2.1%, 2.0%, 2.6%) 中> 3월 PPI YoY (3.1%, 3.2%, 3.7%) 3월 CPI YoY (2.1%, 2.6%, 2.9%)	韓> 옵션만기일 금융통화위원회 (1.50%, 1.50%, 1.50%)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30, 242)	韓> 기업실적: 한샘 美> 기업실적: JP Morgan, Wells Fargo, Citibank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n/a, 100.6, 101.4)
16	17	18	19	20
美> 3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0.3%, -0.1%)	美> 기업실적: Netflix, Goldman Sachs, Johnson&Johnson 3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260, 1236) 3월 광공업생산 MoM (n/a, 0.7%, 0.9%) 유럽> 4월 ZEW 서베이 예상 (n/a, n/a, 13.4) 中> 1Q GDP YoY (n/a, 6.8%, 6.8%)	美> 기업실적: Morgan Stanley, Ebay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1.9%) 유럽> 3월 CPI YoY (n/a, n/a, 1.1%)	韓> 기업실적: KB금융, 에스원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3월 선행지수 (n/a, n/a, 0.6%)	韓> 기업실적: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유럽> 4월 소비자기대지수 (n/a, n/a, 0.1) 日> 3월 CPI YoY (n/a, n/a, 1.5%) 2월 3차 산업 지수 MoM (n/a, n/a, -0.6%)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